

노틀담 사회 재단의 위니 방문



페칼롱간에 있는 노틀담 사회재단 이사장인 마리아 율리아나 수녀와 재단 재무 담당자인 마리아 헤를리나 수녀는 사회복지 및 아동 지원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동누사텐가라(NTT) 선교 지역의 여러 노틀담 수녀회 공동체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과 공동체의 필요와 지원을 받는 아동들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쿠방의 엘 타리 공항에서 약 45 분 거리에 있는 빈탕 라우트 올레타 공동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의 수녀들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을 위한 멘토링을 통해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 시설과 기반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습니다. 마리아 니콜린 수녀, 마리아 에우프라시아 수녀, 마리아 세실리오 수녀는 교사, 행정 직원, 공동체 관리자이자 교회와 보다 넓은 공동체를 위한 봉사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정은 오엘레타에서 위니에 있는 마르가닝시 가정 방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수녀들은 구불구불하고 가파른 길을 따라 이동했는데, 특히 건기에는 언덕이 많고 바위투성이인 지역을 지나야 했습니다.

위니에 위치한 마르가닝시 가정은 현재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20 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교육 지원, 생활비 보조, 기술 훈련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준비 등을 돕고 있습니다. 마리아 데타 수녀가 이 공동체의 책임자입니다.

방문 기간 동안 율리아나 수녀와 헤를리나 수녀는 센터의 아이들에게 자전거 여러 대를 전달했습니다. 이 자전거들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거나 일상 활동에 참여할 때 이동 수단으로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이번 방문 중에는 피정, 그룹 활동, 예술 공연, 함께하는 식사, 기도 시간도 마련되었습니다. 위니를 떠난 수녀들은 케파메나루로 이동해 그곳의 공동체를 방문한 뒤, 무사히 자카르타로 돌아왔습니다.